

취업자 수로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의 지역별 비교

강기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과거 외환위기, 사스, 금융위기, 메르스를 경험했고, 현재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이고, 위기의 요인으로는 단기외채와 외환보유 부족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는 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여 실물 부문의 수요 부족으로 전개되었는데 해당 국가는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으로 대응하였다.

2008년 9월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이고, 위기의 요인으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 부문에서 시작하여 실물 부문의 수요 부족으로 전개되었는데 해당 국가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응하였다.

20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는 감염병이 원인이지만 코로나19는 방역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수요 및 공급, 금융시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과거 감염병 위기와 달라 글로벌 보건 위기로 규정되었는데 전 세계는 봉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및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는 살아 있는 동물이라 장기추세를 중심으로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는 경기순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위기를 거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가 이전보다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충격 자체는 예측하기 어렵고,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회복력(Resilienc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력을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홍사흠 외(2016)는 경기순환이론에 근거하여 지역경제의 동태적인 특성을 감안한 지역경제 회복력을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으로 구분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16개 시·도의 경제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유형화하면서, 지역경제 회복력의 정량적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회복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영우 외(2020)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한국경제 및 부산지역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부산지역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환위기, 사스, 금융위기, 메르스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생산지표(제조업 생산, 제조업 업황BSI), 수요지표(소비자심리지수, 수출, 설비투자BSI), 고용지표(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각 위기별 각 지표의 하락(감소)폭 및 지속·회복기간을 계산하였다. 강기춘(2021)은 지역경제 회복력을 충격반응력, 충격반동력 및 충격회복력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 동행종합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회복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회복력 관점에서 지역경제를 유형화한 후, 지역경제 회복력 결정요인과 지역경제 회복력의 관계를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 및 17개 시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금융위기와 비교하였다. 한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이용하였는데 하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다른 하나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이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이상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II. 회복력 개념 및 측정

회복력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시스템, 사회, 집단, 개인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 이로부터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로 정의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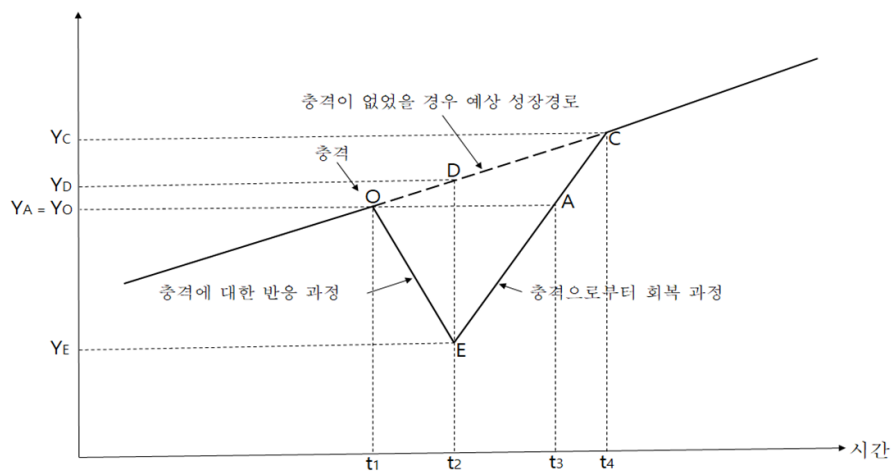
이 정의는 충격 이전과 충격 이후를 정적인 균형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림 1>에서 보면 A에서 지역경제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한다.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회복력을 “외부 충격을 중심으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충

1) 홍사흠 외(2016)

격 이후의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적 진화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²⁾ 이 정의는 충격 이전과 충격 이후의 지역경제를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성장경로(Growth Path)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면 충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지역경제 성과(총생산, 고용 등)가 충격 이전 성장경로(또는 정상상태(Steady-State))로 돌아간 C에서 지역경제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경기순환이라는 지역경제의 동태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경제 회복력이 측정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경기가 외부 충격으로 정점을 기점으로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여 저점까지 이르는 과정을 충격반응력이라고 하고, 저점을 기점으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여 충격 이전 수준까지 이르는 과정을 충격반동력이라고 하며, 저점을 기점으로 경기가 반등하여 확장 국면을 거쳐 기존 성장경로까지 이르는 과정을 충격회복력이라고 한다.

〈그림 1〉 지역경제 회복력 측정



2) Martin & Sunley(2015), 변창욱(2015)은 회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잘 정리하고 있다.

Martin and Sunley(2015)와 Han and Goetz(2015)는 경기순환과 지역경제 회복력의 관계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력과 충격회복력으로 지역경제 회복력을 측정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외에 충격반동력을 추가하였다.³⁾

첫째, 충격에 대한 반응 과정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충격반응력으로 D에서 E까지 수선으로 측정한다.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충격반응력을 측정할 경우 외부충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성장경로 상의 취업자 수 예상치(Y_D)와 실제 외부충격으로 인한 지역경기순환 상 저점에서의 취업자 수(Y_E) 차이로 측정하며 다음의 (1)식과 같다.⁴⁾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충격반응력을 해석해 보면 경기가 외부 충격에 의해 정점을 기점으로 수축 국면으로 전환되어 저점까지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취업자 수 예상치(Y_D)와 실제 외부충격으로 인해 지역경기순환 상 저점에서의 취업자 수(Y_E) 차이가 작을수록 충격반응력의 값은 작아진다. 따라서 충격반응력의 값이 크면 클수록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므로 지역경제 회복력 또한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text{ 충격반응력} = \frac{Y_D - Y_E}{Y_D}$$

둘째, 충격으로부터 회복 과정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충격 반동력으로 E에서 A까지 사선으로 측정한다.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충격반동력을 해석해 보면 저점을 기점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어 충격 발생 직전 수준으로 회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 저점(Y_E)에서 부터 충격 발생 직전 수준 이상(즉, $Y_A \geq Y_O$)으로 얼마나 빨리 회귀하는지의 반동속도(Rebound Velocity)로 측정하며 다음의 (2)식과 같다.⁵⁾ 저점에 서의 취업자 수(Y_E)에서 충격 발생 직전 취업자 수(Y_A) 수준으로 빠른 시간에 회복하거나(즉, 반동지속기간인 $t_3 - t_2$ 가 짧거나) 더 큰 충격의 여파를 극복하면(즉, $Y_A - Y_E$ 가 크면) 충격반동력의 값은 커진다. 따라서 충격반동력의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경제 회복력 또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text{ 충격반동력} = \frac{Y_A - Y_E}{Y_E} \cdot \frac{1}{t_3 - t_2}$$

3) 본 연구에서 충격반동력을 측정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충격회복력 측정이 가능한 지역보다는 충격반동력 측정이 가능한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4) Han and Goetz(2015)는 이를 drop이라고 하고, t_1 부터 t_2 까지를 불황지속(recession duration) 기간이라고 하였다.

5) Han and Goetz(2015)는 이를 rebound라고 t_2 하고, t_3 부터 까지를 회복지속(recovery duration) 기간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t_2 부터 t_3 까지를 반동지속(rebound duration) 기간, t_2 부터 t_4 까지를 회복지속(recovery duration)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충격으로부터 회복 과정 측면에서 지역경제 회복력을 나타내는 충격회복력으로 E에서 C까지 사선으로 측정한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 저점에서부터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성장경로 수준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의 회복속도(Recovery Velocity)로 측정하며 다음의 (3)식과 같다.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충격회복력을 해석해 보면 저점을 기점으로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어 확장 국면을 거쳐 기존의 성장경로로 회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저점에서의 취업자 수(Y_E)에서 기존의 예상 성장경로(Y_C)로 빠른 시간에 회복하거나(즉, 회복지속기간인 $t_3 - t_2$ 가 짧거나) 더 큰 충격의 여파를 극복하면(즉, $Y_C - Y_E$ 이 크면) 충격회복력의 값은 커진다. 따라서 충격회복력의 값이 크면 클수록 지역경제 회복력 또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text{ 충격반동력} = \frac{Y_C - Y_E}{Y_E} \cdot \frac{1}{t_4 - t_2}$$

본고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또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력을 측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12개월 이동평균으로 계절조정을 통제한 후 t시점이 위기 발생시점일 경우 t-1기 취업자 수를 100으로 표준화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발생시점이 2008년 9월이고, 코로나19의 경우 발생시점이 2020년 1월이었다. 다음으로, 감소폭, 감소기간, 회복기간, 총기간을 식별하고 충격반동력을 측정하였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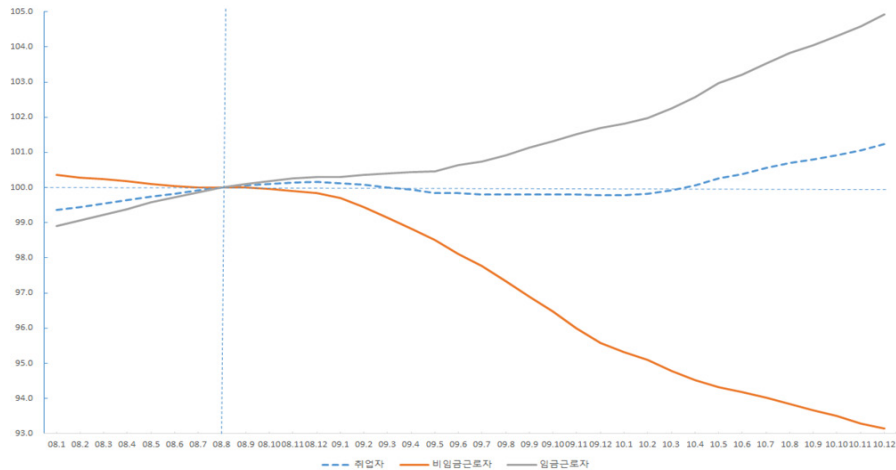
III.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2개 분류)

1. 금융위기

〈그림 2〉는 전국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금융위기 발생시점이 2008년 9월이므로 2008년 8월의 취업자 수를 100으로 표준화 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6) 충격반응력 및 충격회복력을 측정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충격이 없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성장경로상의 취업자 수 예상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2〉 금융위기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2개 분류) 취업자 수(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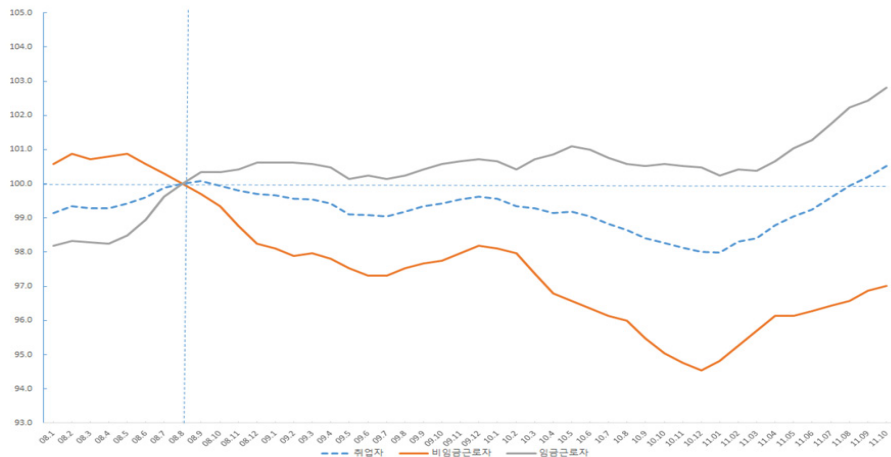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 수는 2009년 4월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 2월 저점을 지난 후 2010년 4월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는데 감소폭은 -0.2%, 감소기간은 18개월, 회복기간은 2개월로 총기간은 20개월, 충격반동력은 0.0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코로나19 발생 시점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림 3〉은 제주지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1월 저점을 지난 후 2011년 9월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는데 감소폭은 -2.0%, 감소기간은 29개월, 회복기간은 8개월로 총기간은 37개월, 충격반동력은 0.00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2011년 3월까지 감소하지 않은 채 정체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1년 1월 저점을 지난 후 금융위기 발생시점 이후 67개월만인 2013년 11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금융위기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2개 분류) 취업자 수(제주)



〈표 1〉은 전국 및 17개 지자체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 감소기간, 회복기간, 총기간 및 충격반동력과 종사상 지위별(2개 분류) 취업자 수의 회복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 전체 취업자 수는 전국보다 -1.8%p 감소하였고, 감소기간 및 회복기간은 각각 11개월 및 6개월로 길었으며, 충격반동력은 0.0037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9개 지자체를 살펴보면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 -2.6%, 가장 작은 지역은 광주 -0.2%, 지자체 평균 -1.3%인데 지자체 평균보다 감소폭이 큰 지역은 서울, 부산, 충남, 제주 등 4개로 나타났다. 감소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부산 33개월, 가장 짧은 지역은 강원 3개월이며, 지자체 평균 15개월인데 지자체 평균보다 긴 지역은 서울, 부산, 제주 등 3개로 나타났다. 회복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 13개월, 가장 짧은 지역은 광주 2개월, 지자체 평균 7.4개월인데 지자체 평균보다 긴 지역은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제주 등 5개로 나타났다. 총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부산 44개월, 가장 짧은 지역은 인천 및 광주 10개월, 지자체 평균 22.4개월인데 지자체 평균보다 긴 지역은 서울, 부산, 충남, 제주 등 4개로 나타났다. 충격반동력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0.0028, 가장 작은 지역은 강원 0.0007, 지자체 평균 0.0018인데 지자체 평균보다 큰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등 4개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자체의 경우 전반기 정세-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자체는 상승형태는 다양하지만 전체적

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임금근로자의 경우 서울 및 부산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기간은 각각 25개월 및 44개월로 나타났다. 그 외 세종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는 상승형태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제주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기간은 63개월로 나타났다. 그 외 세종을 제외한 지자체 중 부산 및 대구는 코로나19 발생 시점까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표 1〉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 지역별 취업자 수¹⁾

(단위: 개월, %)

지역	감소폭	감소기간	회복기간	총기간	충격반동력	회복여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국	-0.2	18	2	20	0.0065	지속상승	미회복 ²⁾
서울	-2.3	19	13	32	0.0019	25	미회복
부산	-2.6	33	11	44	0.0026	38	미회복
대구	-1.1	9	5	14	0.0022	지속상승	지속하락
인천	-0.3	7	3	10	0.0013	정체-상승	지속하락
광주	-0.2	8	2	10	0.0015	순환-상승	지속상승
대전			지속상승			지속상승	상승-하락
울산			정체-상승			정체-상승	상승-하락
세종	-	-	-	-	-	-	-
경기			지속상승			지속상승	상승-하락
강원 ³⁾	-0.6	3	9	12	0.0007	지속상승	지속하락
충북			지속상승			소폭지속상승	지속하락
충남	-1.9	12	12	24	0.0016	정체-상승	지속하락
전북 ⁴⁾	-0.7	15	4	19	0.0018	하락-상승	상승-하락
전남			정체-하락			지속상승	지속하락
경북			소폭상승-순환			지속상승	상승-하락
경남			소폭상승-순환			지속상승	지속하락
제주	-2.0	29	8	37	0.0028	정체-상승	63

주: 1) 12개월 이동평균, t시점이 코로나19 발생시기, t-1=100으로 표준화

2) 미회복은 코로나19 발생 시점

3) 2010년 3월까지 감소 없었고, 이후 소폭 하락

4) 2009년 11월까지 감소 없었고, 이후 소폭 하락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7) 상승형태는 지속상승, 정체-상승, 소폭상승-순환 등으로 나타났다.

8) 상승형태는 지속상승, 정체-상승, 순환-상승, 소폭지속상승, 하락-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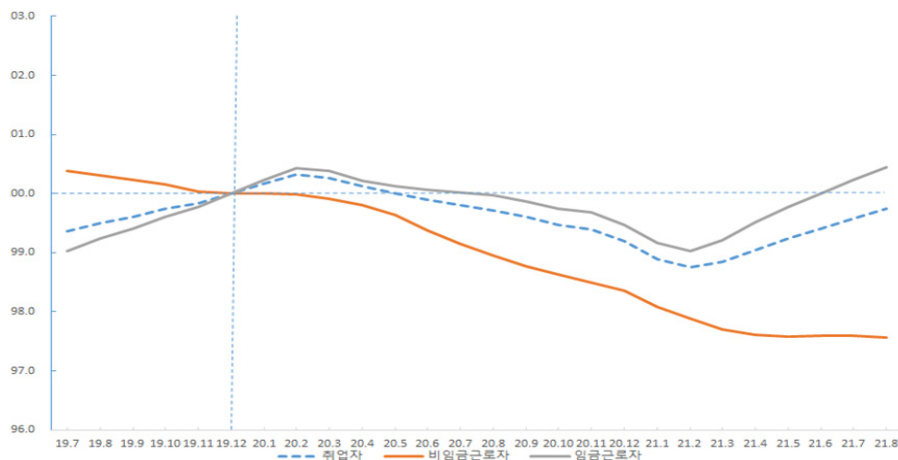
9) 형태는 지속하락, 지속상승, 상승-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그림 4〉는 전국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코로나19 발생시점이 2020년 1월이므로 2019년 12월의 취업자 수를 100으로 표준화 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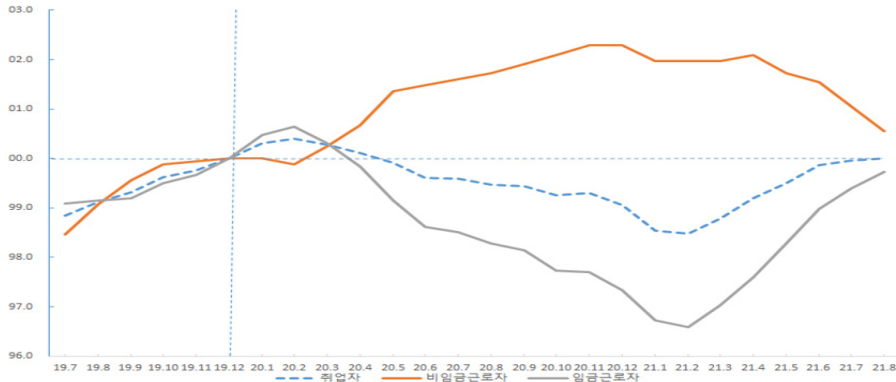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까지의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1년 2월 저점을 지난 후 반등하였으나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 발생 시점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감소폭은 -1.3%, 감소기간은 1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2020년 3월까지의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1년 2월 저점을 지난 후 2021년 6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코로나19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2개 분류) 취업자 수(전국)



한편, 〈그림 5〉는 제주지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코로나19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2개 분류) 취업자 수(제주)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3월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21년 2월 저점을 지난 후 2021년 7월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였는데 감소폭은 -1.5%, 감소기간은 14개월, 회복기간은 5개월로 총기간은 19개월, 충격반동력은 0.0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는 2020년 2월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21년 2월 저점을 지난 후 반등하였으나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2020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으나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전국 및 17개 지자체의 코로나19 발생 전후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 감소기간, 회복기간, 총기간 및 충격반동력과 종사상 지위별(2개 분류) 취업자 수의 회복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 전체 취업자 수는 전국보다 -0.2%p 감소하였고, 감소기간은 동일하고 회복기간 5개월, 충격반동력은 0.003으로 나타난 반면 전국은 미회복으로 나타나 충격반동력을 측정할 수 없다.

한편, 전체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3개 지자체는 경기, 전남, 제주 등 3개에 불과한데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1.5%, 가장 작은 지역은 전남 -0.4%로 나타났다. 감소기간은 3개지자체가 모두 14개월로 동일하였으며, 회복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제주 5개월, 가장 짧은 지역은 전남 3개월로 나타났고, 총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제주 19개월, 가장 짧은 지역은 전남 17개월로 나타났다. 충격반동력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0.003, 가장 작은 지역은 전남 0.0013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의 충격반동력을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0.0028 및 코로나19 0.003으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서울

등 8개 지자체가 2021년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정체(대전), 지속하락(울산), 지속상승(세종, 충북), 정체-상승(전북), 정체-하락(경북)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구, 강원, 전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기간은 대구 16개월, 강원 10개월, 전북 18개월로 나타났다. 그 외 서울, 부산, 제주는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¹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울이 2021년 8월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는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¹¹⁾

〈표 2〉 코로나19 발생 전후 지역별 취업자 수¹⁾

(단위: 개월, %)

지역	감소폭	감소기간	회복기간	총기간	충격반동력	회복여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국	-1.3	14	미회복 ²⁾	미회복	-	10	미회복
서울	-1.3	14	미회복	미회복	-	미회복	미회복
부산	-2.6	15	미회복	미회복	-	미회복	지속상승
대구	-3.1	14	미회복	미회복	-	16	지속하락
인천	-1.7	15	미회복	미회복	-	지속상승	지속하락
광주	-0.7	14	미회복	미회복	-	지속하락	지속상승
대전	정체					소폭지속상승	하락-상승
울산	지속하락					지속하락	정체-하락
세종	지속상승					지속상승	지속상승
경기	-1.0	14	4	18	0.0025	정체-상승	지속하락
강원	-2.6	15	미회복	미회복	-	10	지속하락
충북	지속상승					지속상승	정체-하락
충남	-2.0	14	미회복	미회복	-	하락-상승	정체-하락
전북	정체-상승					18	지속상승
전남	-0.4	14	3	17	0.0013	상승-하락	하락-상승
경북	정체-하락					정체-하락	하락-정체
경남	-1.8	15	미회복	미회복	-	정체-하락	하락-상승
제주	-1.5	14	5	19	0.003	미회복	상승-하락

주: 1) 12개월 이동평균, t시점이 금융위기 발생시기, t-1=100으로 표준화

2) 미회복은 21년 8월 현재

3) 미회복의 경우 충격반동력을 측정할 수 없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10) 형태는 지속상승, 소폭지속상승, 지속하락, 정체-상승, 하락-상승, 상승-하락, 정체-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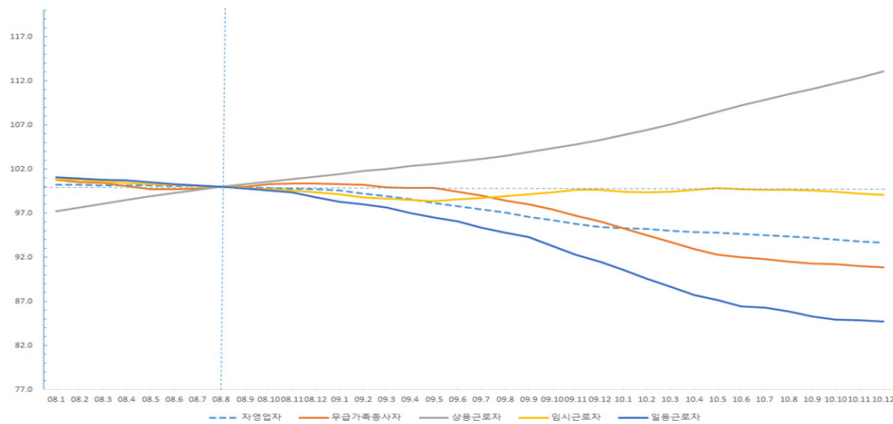
11) 형태는 지속상승, 지속하락, 하락-상승, 정체-하락, 상승-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Ⅳ.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5개 분류)

〈그림 6〉은 전국 임금근로자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고 금융위기 발생시점이 2008년 9월이므로 2008년 8월의 취업자 수를 100으로 표준화 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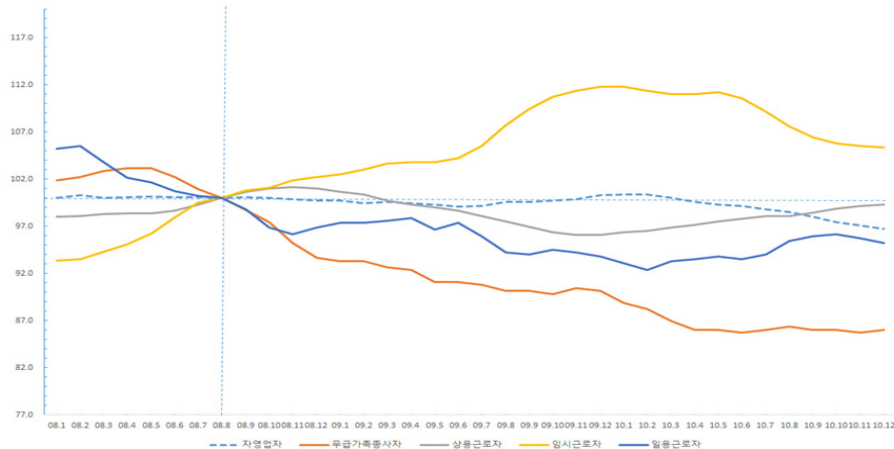
상용근로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0년 5월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009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금융위기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5개 분류) 취업자 수(전국)



〈그림 7〉은 제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하락하다가 상승하였고, 임시근로자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1년 3월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일용근로자는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자영업자는 정체하다가 2010년 4월 이후 소폭 하락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금융위기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5개 분류) 취업자 수(제주)



〈표 3〉은 전국 및 16개 지자체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경우 임시근로자는 21개월 만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나머지는 지속상승, 지속하락, 정체-하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의 경우 임시근로자는 31개월 만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나머지는 하락-상승, 순환하락, 정체-소폭하락, 지속하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지속상승, 정체-상승, 하락-상승을 보여 전반적으로 상승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전복은 하락하였으나 22개월 만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임시근로자는 6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5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5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일용근로자는 3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12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1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자영업자는 2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14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14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1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한편, 지속상승 +2, 상승 +1, 회복 0, 하락 -1, 지속하락 -2의 점수를 부여하는 scoring 방법으로 각 지자체

별로 종사상 지위별 점수를 합산한 후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보면 A등급 지자체는 광주, B등급 지자체는 경북, 울산, 충북, 전북, 경남, C등급 지자체는 인천, 대전, 강원, 전남, 서울, 제주, D등급 지자체는 부산, 경기, 대구, 충남으로 나타났다.

〈표 3〉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 지역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¹⁾

(단위: 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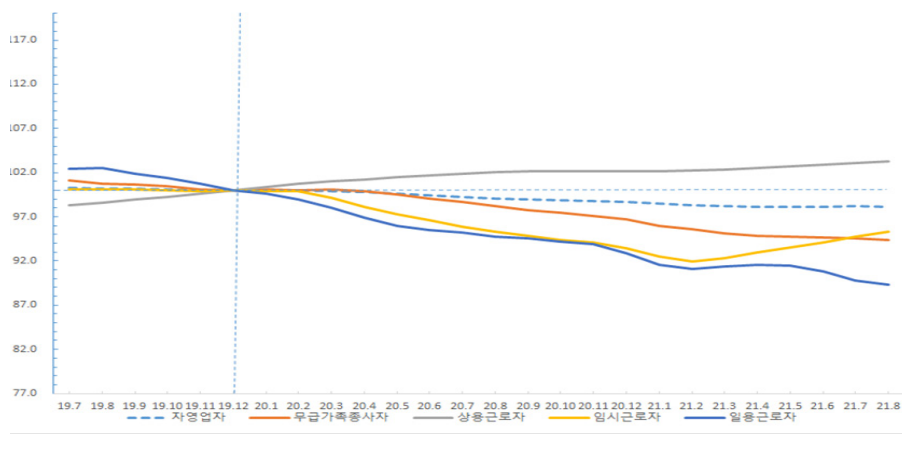
지역	회복여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국	지속상승	21	지속하락	지속하락	정체-하락
서울	지속상승	하락-상승	정체-하락	지속하락	하락-상승
부산	지속상승	지속하락	지속하락	하락-상승	상승-하락
대구	지속상승	하락-상승	지속하락	지속하락	지속하락
인천	지속상승	정체-상승	지속하락	소폭상승-하락	지속하락
광주	지속상승	15	순환상승	소폭지속상승	17
대전	지속상승	11	상승-하락	정체-하락	상승-하락
울산	지속상승	28	14	상승-하락	소폭상승-대폭하락
경기	지속상승	지속하락	지속하락	지속하락	상승-하락
강원	정체-상승	지속상승	순환하락	지속하락	지속하락
충북	지속상승	상승-하락	순환상승	지속하락	상승-하락
충남	지속상승	29	대폭지속하락	하락-정체	순환하락
전북	22	상승-정체	정체-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
전남	하락-상승	정체-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	지속하락
경북	정체-상승	정체-상승	상승-정체	상승-하락	정체-하락
경남	지속상승	상승-하락	하락-정체	지속하락	상승-하락
제주	하락-상승	31	순환하락	정체-소폭하락	지속하락

주: 1) 12개월 이동평균, 시점이 코로나19 발생시기, t-1=100으로 표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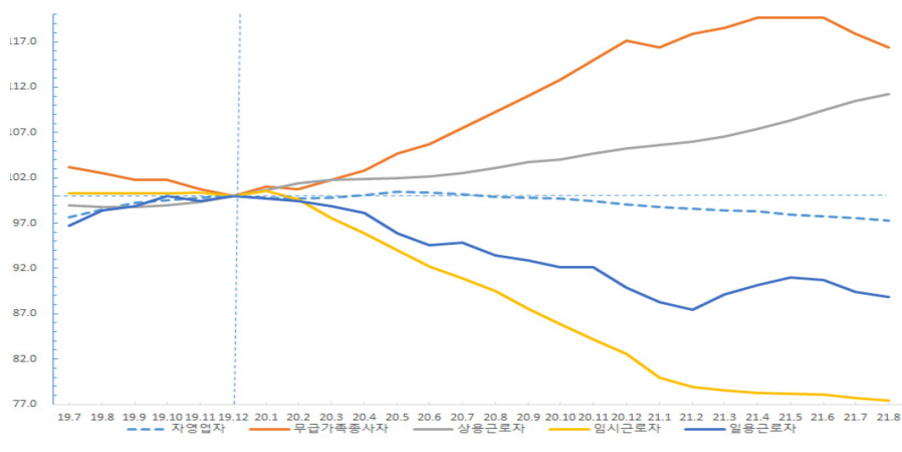
〈그림 8〉은 전국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하락하였으나 2021년 2월 이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코로나19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5개 분류) 취업자 수(전국)



〈그림 9〉는 제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코로나19 전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지속상승하다가 2021년 6월 이후 하락하였고, 임시근로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일용근로자는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자영업자는 정체하다가 2021년 7월 이후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코로나19 발생전후 종사상 지위별(5개 분류) 취업자 수(제주)



〈표 4〉는 전국 및 17개 지자체의 코로나19 발생 전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수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지속상승하였고 임시근로자는 하락-상승하였으나 나머지는 지속하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의 경우 상용근로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지속상승하였으나 나머지는 순환하락, 지속하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12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4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1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임시근로자는 5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10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2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일용근로자는 4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9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4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자영업자는 5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8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4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4개 지자체가 상승 형태, 11개 지자체가 하락 형태, 2개 지자체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한편, 지속상승 +2, 상승 +1, 회복 0, 하락 -1, 지속하락 -2의 점수를 부여하는 scoring 방법으로 각 지자체 별로 종사상 지위별 점수를 합산한 후 A부터 D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보면 A등급 지자체는 전북, 대전, B등급 지자체는 부산, 광주, 충남, 제주, 세종, 충북, C등급 지자체는 강원, 전남, 인천, 경북, 경남, 서울, 대구, D등급 지자체는 울산, 경기도 나타났다.

〈표 4〉 코로나 19 발생 전후 지역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¹⁾

(단위: 개월, %)

지역	회복여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국	지속상승	하락-상승	지속하락	지속하락	지속하락
서울	지속상승	지속하락	지속하락	19	지속하락
부산	지속하락	정체-상승	지속하락	지속상승	지속상승
대구	정체-상승	하락-상승	19	지속하락	지속하락
인천	지속상승	지속하락	8	하락-정체	지속하락
광주	정체-하락	지속하락	16	소폭지속상승	대폭지속상승
대전	소폭상승-정체	지속상승	순환하락	지속하락-상승	상승-하락
울산	소폭상승	지속하락	지속하락	20	지속하락
세종	지속상승	지속하락	지속하락	지속상승	10
경기	지속상승	하락-상승	정체-하락	지속하락	지속하락

지역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강원	소폭상승-정체	19	17	지속하락	상승-하락
충북	정체-상승	상승-하락	하락-상승	정체-하락	상승-하락
충남	20	지속상승	지속하락	정체-소폭하락	소폭상승-정체
전북	지속상승	지속하락	하락-상승	지속상승	지속상승
전남	상승-하락	정체-하락	상승-하락	13	10
경북	상승-하락	하락-정체	하락-상승	13	하락-정체
경남	소폭상승-정체	18	하락-상승	정체-소폭하락	지속하락
제주	지속상승	지속하락	순환하락	지속하락	지속상승-하락

주: 1) 12개월 이동평균, t시점이 코로나19 발생시기, t-1=100으로 표준화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V. 정책 시사점

본고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 및 17개 시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살펴보고 금융위기와 비교하였다. 한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를 이용하였는데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2개 구분과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5개 구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위기에 다른 종사상 지위별 변화의 요인을 살펴서 대안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위기를 거치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각 지자체의 등급변화를 살펴보면 2등급 상승한 지자체는 대전, 부산, 충남으로 나타났고, 1등급 상승한 지자체는 전북, 제주로 나타났다. 2등급 하락한 지자체는 울산으로 나타났고, 1등급 하락한 지자체는 광주, 경북, 경남, 서울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자체는 등급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전후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의 고용이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보다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전후의 경우 상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작아지고,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상용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금융위기를 거치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의 상승, 하락, 회복의 변화를 살펴

보면 상용근로자의 경우 상승 지자체수가 3개 감소, 하락 지자체수가 4개 증가, 회복 지자체수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경우 상승 지자체수가 1개 감소, 하락 지자체수가 5개 증가, 회복 지자체수가 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승 지자체수가 1개 증가, 하락 지자체수가 3개 감소, 회복 지자체수는 3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승 지자체수가 3개 증가, 하락 지자체수가 6개 감소, 회복 지자체수는 4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상승 지자체수가 3개 증가, 하락 지자체수가 3개 감소, 회복 지자체수는 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등급변화 요인, 안정성 변화요인, 상승 및 하락요인을 살펴서 긍정적인 요인은 더욱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인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기춘, “경제적 충격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력 연구-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제53권 제2호, 2021년 8월, pp.1-25.

변창욱, “지역경제 회복력의 개념과 정책방향”, 「국토」, 통권 400호, 2015, pp.11-16.

이영우, 윤태영, 이지영, 「코로나19와 과거 경제위기 비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20년 6월)」, 한국은행, 2020.

홍사흠, 안흥기, 김은란, 하수정, 남기찬,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기본 16-01)」, 국토연구원, 2016.

Han, Yicheol and S. J. Goetz, “The Economic Resilience of U.S. Counties during the Great Recession”, *Review of Regional Studies* 45, 2015, pp.131-149.

Martin, R. and P. Sunley, “On the Notion of Regional Economic Resilience: Conceptualization and Explana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5(1), 2015, pp.1-4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